

# 시시각각 변하는 10대들의 초상



상탈 조페 'Esmé', 180x120cm, 2020



얼굴은 살아온 세월을 담는다. 나이가 들면 노화를 겪지만 굳어진 인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10대는 하루하루 신체가 변한다.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다. 상탈 조페(51)의 국내 첫 개인전 '틴에이지스'(Teenagers)는 시시각각 변하는 10대들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상탈 조페는 딸과 조카, 친구의 자녀 등 가까운 곳에 있는 10대들을 빠른 붓질로 표현했다. 상탈 조페는 패션모델, 어머니와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 문학작품 속 주인공 등 다양한 인물의 초상을 그려온 작가다. 1990년대에는 포르노 여배우를 그려 주목받았다.

10대를 주제로 삼은 것은 2004년 딸 에스메가 태어나면서부터다.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한 작업이 10대라는 주제로 확장됐다. 대부분 10대 소녀가 등장하는 작품은 특별한 서사를 드러내지 않는다. 작품 속 주인공들의 표정과 의상, 자세 등으로 인물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기 특유의 무관심, 연약함과 불안한 정서가 엿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가장 겁 없고 에너지 넘치는 시기인 10대의 자신감과 당당함도 보인다.

"회화는 대상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곁에서 지켜본 10대들의 순간순간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높이가 30cm에 불과한 작은 회화에서부터 3m 높이의 대형 회화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소년, 소녀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주인공들은 같은 인물이어도 작품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10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시일정(장소)** 2021년 1월 29일까지(리만머핀 서울)  
**관람료** 무료  
 ☎ 02-725-0094

## 나희균 70년 화업을 돌아보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 수화 김환기(1913~1974)는 파리,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며 여러 예술가와 교류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은 김환기와 영감을 주고받은 작가들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수화가 만난 사람들'을 이어왔다. 그동안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 초대 관장을 비롯해 남관, 석난희, 조문자 등이 소개됐으며, 올해에는 나희균(88) 작가의 70년 화업을 돌아본다. '수화가 만난 사람들 - 나희균, 고요의 빛'전은 나희균의 드로잉, 회화, 네온, 금속 입체 작품 등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파리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작품활동을 하던 1950년대 회화 작품부터 기하학적이고 평면적인 조형 기호로 구성된 1960년대 작품, 1970~1980년대 네온과 금속을 소재로 한 입체작품, 무수히 빛나는 별무리를 통해 송고한 우주 공간을 그려낸 1990년대 평면작업,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글씨 연작, 음률 연작 등이 전시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1896~1948)의 조카인 나희균은 고모의 뒤를 이어 1950년대 국내 여성 예술가로는 드물게 유럽 화단에서 활동한 작가다. 1953년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한 나희균은 그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1955년 프랑스로 건너가 1957년까지 파리국립미술학교를 다녔다.

1950년대 중반 김환기가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할 당시 김환기·김향안 부부와 우정과 예술적 교감을 나눴다. 1957년 파리 베네지트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귀국 후 15회의 개인전과 다수 그룹전을 통해 화단의 유행이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조형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온을 이용한 작품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소재와 형식으로 한국 미술계에 다양성을 불어넣은 1세대 작가로 평가된다.



나희균 '짚에 대한 생각'

**전시일정(장소)** 12월 31일까지(환기미술관)  
**관람료** 성인 5천원  
 ☎ 02-391-7702



## 핀란드 국민 캐릭터 무민 이야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무민'(Moomin)과 관련한 볼거리를 모은 전시가 개막했다. '무민 오리지널: 무민 75주년 특별 원화전'은 무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융복합형 전시다.

무민은 토베 얀손(1914~2001)이 핀란드에서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소설 '작은 무민 가족과 큰 홍수'를 1945년 출간하면서 탄생했다. 동글동글한 눈에 통통한 몸을 가진 무민은 핀란드 골짜기에 가족과 친구들과 살면서 모험을 통해 사랑과 우정, 공존과 행복의 가치를 전해온 캐릭터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무민은 소설, 연재만화,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 여러 콘텐츠로 제작돼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무민 시리즈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54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영국 신문 '이브닝 뉴스'에 무민 만화가 연재되면서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애니메이션이 처음 방영됐다.

무민 가족의 모험 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전시는 원화와 삽화 작품 등 250여 점을 선보인다. 소설에 등장하는 편화 등은 핀란드 무민캐릭터스와 얀손 집안에서 소장한 원화를 직접 공수했다고 전시를 기획한 미디어아트는 전했다. 무민 캐릭터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과 미디어아트 등의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됐다.

**전시일정(장소)** 2021년 11월까지(그라운드스시소 성수)  
**관람료** 성인 1만3천원, 미성년자 1만원  
 ☎ 1522-1796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온 차간티의 스릴러 '런' 90분을 딱 채운 긴장과 충격, 반전

2018년 구글 출신의 20대 감독 아니시 차간티의 저예산 영화 '서치'는 국내 영화계에 신선한 자극을 안겼다. '서치'는 실종된 10대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를 그린 영화다. 그런데 아버지의 고군분투가 모두 노트북과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펼쳐진다.

차간티 감독은 SNS와 CCTV 영상, 화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우스 커서, 메신저 대화창에 입력되는 메시지를 통해 숨 막히는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다. 영화는 제작비의 75배에 달하는 박스오피스 흥행을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29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나를 찾아줘'를 제치고 역대 외화 스릴러 흥행 1위에 올랐다.

차간티 감독이 2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영화 '런'은 소포모어 징크스(2년차 중후군) 따위는 모른다는 듯, 다시 한번 과감하고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이번에는 중증 장애를 가진 딸과 딸을 지키는 엄마의 이야기다. 다이앤(세라 폴슨)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 클로이(키에라 앨런)를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부정맥과 천식, 당뇨, 발진, 허반신 마비를 한꺼번에 앓고 있는 클로이는 휠체어로 움직이면서도 호흡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혼자서 약을 바르고 먹고 주사도 혼자 놓을 만큼 깨끗하게 자랐다.

다이앤은 클로이를 위해 텃밭에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홈스쿨링 부모 모임에 나가며 클로이의 공부를 도와준다. 명석한 클로이는 전기 기구에 흥미를 갖고 있고, 대학에 지원해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클로이는 엄마가 식탁에 둔 장바구니에서 몰래 초콜릿을 챙기려다 이상한 약병을 발견한다. 엄마가 매일 챙겨주는 초록색 약이 엄마의 이름으로 처방돼 있었던 것. 엄마는 약병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영수증이라고 둘러대지만, 클로이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약의 정체를 추적해 간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약 이름을 치면 끝날 일이지만, 클로이에게는 스마트폰이 없다. 컴퓨터도 2층 방이 아닌 1층에 있다. 늦은 밤 1층으로 몰래 내려가 컴퓨터를 켜지만 인터넷 연결은 되지 않고, 약국에 전화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엄마를 속이고 직접 약국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클로이는 결국 방에 갇혀 버리고, 주변에 외쳐 부를 이웃도 없는 외딴집에서 탈출을 감행한다. 본격적인 탈출극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한껏 고조돼 있던 긴장이 폭발하며 영화가 끝날 때까지 몰아치는 충격과 반전에 숨 쉴 틈이 없다.

20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

**감독** 아니시 차간티  
**출연** 세라 폴슨, 키에라 앨런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20일

### 맹크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아버지 잭 핀처가 쓴 각본으로 30년 만에 완성한 흑백 영화다. 미국영화연구소(AFI)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영화'로 선정한 영화 '시민 케인'(1941)의 탄생을 통해 황금기를 맞이한 1930년대 할리우드를 그린다.

영화는 데뷔작 '시민 케인'으로 25살의 나이에 할리우드의 천재 감독 반열에 오른 오선 웰스가 아니라, 웰스로부터 각본 의뢰를 받은 작가 허먼 멩키워츠의 집필 과정을 담았다.

신랄한 비평가이자 알코올 중독자인 멩크(게리 올드먼)는 사치스러운 삶을 과시하는 황색 언론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찰스 덴스)와 그의 애인인 배우 매리언 데이비스(어맨다 사이프리트)를 보며 '시민 케인'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시민 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멩크'도 플래시백(회상)을 활용해 현재와 과거를 바삐 오가며 당대의 할리우드를 담아낸다. '시민 케인'을 먼저 보는 것이 재미와 이해 모두에 도움이 된다. 12월 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감독** 데이비드 핀처  
**출연** 게리 올드먼, 어맨다 사이프리트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18일



### 그리고 우린 춤을 추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조지아 국립무용단의 댄서 메라비와 이라클리. 섬세하고 우아한 춤을 추는 메라비와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가진 이라클리는 무용단 앙상블 자리를 놓고 선의 경쟁을 한다.

둘만의 연습이 계속될수록 메라비에게 이라클리는 라이벌이 아닌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커져만 간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 선댄스영화제 스포트라이트 부문 초청작이다.

**감독** 레반 아긴  
**출연** 레반 겔바키아니, 바치 발리시빌리, 아나 자바히슈빌리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1월 25일



### 조제

1985년 발표된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소설과 이누도 잇신 감독이 동명의 실사 영화(2003)로 만들어 사랑받았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김종관 감독이 각색해 선보인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집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갇혀 살던 조제(한지민)와 조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영석(남주혁)의 사랑 이야기다.

이누도 잇신 감독의 영화와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다른 결말과 감성을 선보였던 것처럼, '조제' 역시 다른 길을 선택했다.

**감독** 김종관  
**출연** 한지민, 남주혁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봉** 12월 10일

### 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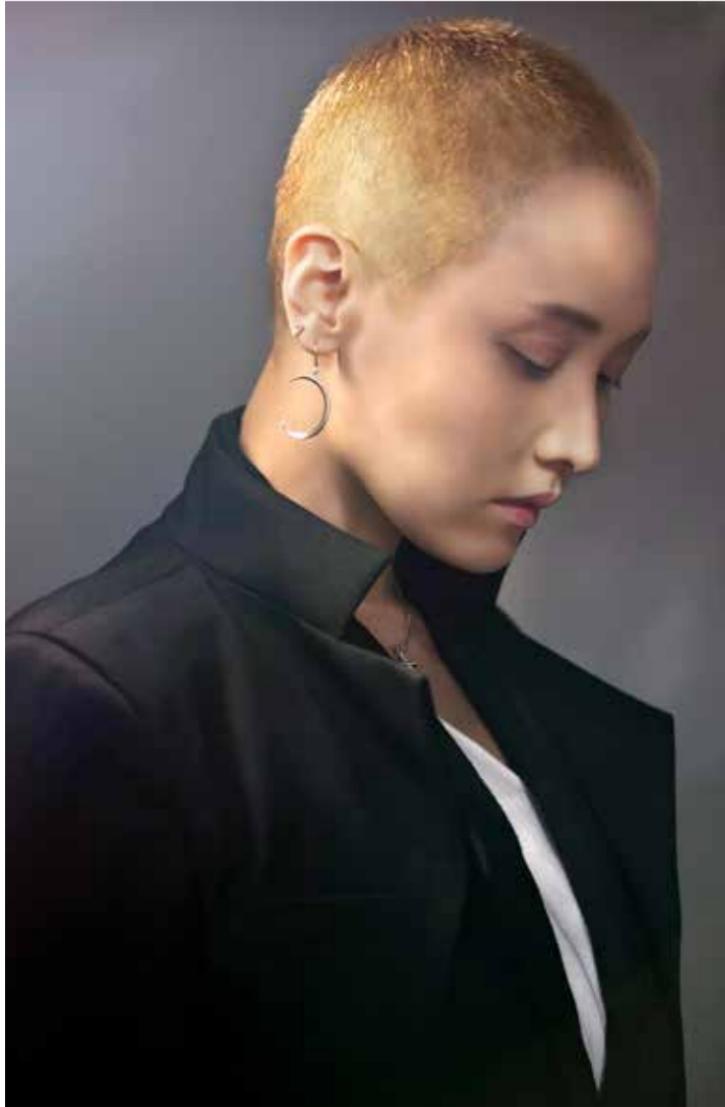
성공한 공연 감독 안야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토마스와 애정은 식어버린 지 오래, 토마스의 성장한 아이 셋과 두 사람이 함께 낳은 어린아이 셋에 늙은 아버지까지 돌보느라 지친 안야는 모두가 떠터 있는 연휴에 가족들을 모아 놓고 시한부 환자임을 밝힌다.

가족과 친구들의 우려 속에 수술을 준비하며 이어가는 일상을 현실적이고도 섬세하게 담았다. 내년 4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국제장평영화부문 노르웨이 출품작이다.

**감독** 마리아 소달  
**출연** 안드레아 베인 호픽, 스텔란 스카스가드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2월 17일

## 2020 이소라 콘서트



**공연일정(장소)** 12월 27~31일(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관람료** 12만1천원  
 ☎ 1544-1555

28년 차 베테랑 가수 이소라가 연말 콘서트 무대에 선다. 매해 12월마다 연말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귀호강'을 선사했던 이소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공연계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소라는 대학생 때 아카펠라 재즈 그룹 '낮선 사람들' 멤버로 데뷔, 특유의 음색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다 김현철과 듀엣으로 부른 '그대 안의 블루'가 대인기를 끌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후 1995년 '난 행복해'를 타이틀곡으로 한 1집이 100만장 이상 팔리면서 정상급 가수로 등정했다.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고 무대에 선 그는 '기억해 줘', '처음 느낌 그대로', '제발', '바람이 분다', '청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트랙 9'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특히 2004년 발표한 6집 '눈썹달'은 이소라를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여자 가수에 등극시켰다. 이 앨범에 '바람이 분다'뿐만 아니라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제 그만' 등이 실렸다. 이 음반은 최근 LP로도 발매됐는데, 예매 오픈 직후에 3천장이 완판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소라는 젊은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이어왔다. '신청곡'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와 입을 맞췄고, 최근에는 크러쉬의 '춤'을 피쳐링했다. JTBC 음악 예능 '비긴 어게인'에 출연해 악뮤(AKMU) 이수현, 헨리, 정승환, 적재 등과 협업했다.

그는 라이브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청아한 목소리와 고음, 애절한 감성은 어떤 여성 솔로 가수도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소라 측은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울리는 밝고 따뜻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밝고 따뜻한 치유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2020 노을 연말 콘서트 '노을이 내린 밤'



겨울의 쓸쓸하고도 짙은 감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4인조 보컬 그룹 노을의 콘서트를 추천한다. 주로 발라드곡을 소화하는 이들은 4명 모두 다른 음색을 가졌지만, 하모니의 향연으로 귀를 즐겁게 한다. 콘서트에서 히트곡만 불러도 시간이 훌쩍 가버릴 만큼 유행가를 많이 배출해냈다. '전부 너였다', '청혼', '불잡고도' 등 초창기 노래부터 '그리워 그리워', '하지 못한 말', '목소리', '살기 위해서' 등 애절한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와 '너의 곁에만 맴돌아'로 음원 차트를 석권하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12~13일(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대강당)  
**관람료** 11만~13만2천원  
 ☎ 1588-7890

### 박혜원(HYNN) 콘서트 '흰, 겨울'



'괴물 신인' 박혜원이 데뷔 후 처음으로 연말 콘서트를 선보인다. 신인 가수, 그것도 여성 솔로 가수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아이돌 그룹의 전유물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한다.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성량과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 처리 능력을 갖춘 박혜원은 차세대 여성 보컬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발라드곡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차트를 '역주행'하며 가요계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이후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싸이어', '아무렇지 않게 안녕' 등을 잇달아 흥행시켰다. 박혜원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히트곡을 비롯해 그간 방송 등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계획이다.

**공연일정(장소)** 12월 27일(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관람료** 7만7천원  
 ☎ 1544-1555

### 2020 윤하 연말 콘서트 'MINDSET'



업템포 곡부터 감성을 돋우는 발라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록발라드까지 모든 장르를 자기 것처럼 소화하는 윤하가 오랜만에 현장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 윤하는 신곡을 낼 때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에게도 인기가 높지만, '아티스트의 아티스트'로도 꼽힌다. RM은 오랫동안 윤하의 팬임을 자처했고, '윈터 플라워' 피쳐링에 참여하기도 했다. 윤하는 빼어난 가창력과 악기 연주 실력을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곡으로 '기다리다', '우산', '비가 내리는 날에는', '오늘 헤어졌어요', '먹구름' 등이 있다.

**공연일정(장소)** 12월 18~31일(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백주년기념관)  
**관람료** 11만원  
 ☎ 1544-1555

### 빅히트 '2021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이스트, 여자친구, 엔하이픈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가 마련됐다. 빅히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합동 공연이다. 빅히트는 "올해 공연의 주제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팬과 팬,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과 2021년의 처음을 '연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소개했다. 세계를 호령한 방탄소년단부터 신인 보이그룹 엔하이픈까지 아이돌들과 함께 코로나 블루를 탈출하는 신나는 공연을 즐겨 보자. 인기 그룹의 합동 공연이기 때문에 예매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공연일정(장소)** 12월 31일(일산 킨텍스)  
**관람료** 15만4천~27만5천원  
 ☎ 1544-1555

##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군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팀이 내한공연으로 국내 관객들  
에게 명작의 가치를 선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무대가 멈춘 가운데  
올리는 공연이어서 더 뜻깊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초연 20주년을  
기념해 2018년에 제작된 새로운 버전으로, 국내 공연은 처음이다.  
2015년 내한공연과 비교해도 의상, 안무, 조명 등 디테일한 부분이  
업그레이드됐다. 먼저 앙상블인 집시들의 하늘거리는 색색의 의상  
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들이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브레이크  
댄스 등의 춤으로 만들어내는 군무는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준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대 세트도 압권이다. 장면에  
따라 100kg이 넘는 대형 종,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  
등이 등장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무대에 투입된 장비 물량만  
30t이 넘는다.

여기에 '대성당들의 시대', '아름답다' 등 명곡으로 꼽히는 넘버를 오  
리지널팀의 프랑스어 원곡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  
금까지 '노트르담 드 파리'는 23개국에서 9개 언어로 공연됐는데 프  
랑스어 공연은 프랑스어 특유의 연음 발음(리에종)으로 원작의 우  
아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특히 '노트르담 드 파리'는 모든 대사를 노래로 전달하는 '송스루'  
(Song Through) 뮤지컬이어서 공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무대 양옆에 번역 자막이 제공되지만,  
대사나 가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보다는 무대 분위기를 느끼  
다 보면 극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다. 공연장을 찾기 전 전반적인 내  
용과 캐릭터를 이해하면 작품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극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와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다. 여기에 종교적 신념에 반  
해 에스메랄다에게 욕망을 품게 된 대성당의 주교 프롤로, 약혼녀  
가 있지만 에스메랄다에게 끌리는 페뷔스가 등장한다.

12월에는 프랑스 초연 멤버인 다니엘 라부아가 대성당의 주교 프롤  
로 역으로 합류한다. 초연 멤버인 그가 국내 관객들을 찾은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공연일정(장소)** 11월 10일~2021년 1월 17일(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관람료** 6만~16만원  
**☎** 02-541-6236



###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의 시를 모티브로 한 동명의 창작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세 번째 시즌이 막을 올렸다. 박해림 작가와 채한울 작곡가가  
우란문화재단 시야 스튜디오와 함께 개발한 작품으로 백석과 그의 연인  
자야의 이야기다.

극은 한때 사랑했던 시인 백석을 못 잊어 평생을 그리움에 살았던  
자야와 백석의 사랑 이야기를 아름다운 운율로 담아낸다.  
당대 시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백석 역은 강필석, 오종혁, 송원근이  
맡았다. 백석의 연인 자야 역은 정운선, 전성민, 이하나가 연기한다.

**공연일정(장소)** 11월 3일~2021년 1월 17일(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4만4천~6만6천원  
**☎** 02-541-7152

### 뮤지컬 '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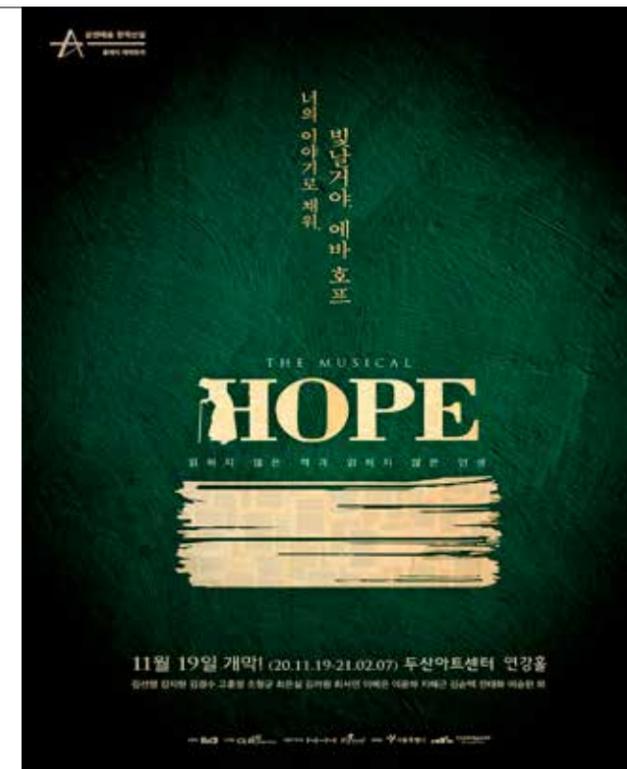
한국 창작 뮤지컬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는 인생'이 1년  
6개월 만에 관객들을 찾았다.

뮤지컬은 현대 문학의 거장 요제프 클라인의 미발표 원고를  
둘러싼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과 78세 노파 호프의 재판 이야기를  
다룬다. 실제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이 2009년 제기했던 카프카  
원고 반환 소송을 모티브로 했다.

하나뿐인 가족, 친구이자 연인에게 상처받고 오롯이 혼자 남아  
원고에만 집착하는 에바 호프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에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

에바 호프 역은 이 작품으로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과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올해의 배우상(여자 부문)을 받았던  
김선영과 일본에서 활동하다 8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하는  
김지현이 맡았다.

**공연일정(장소)** 11월 19일~2021년 2월 7일(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5만5천~8만8천원  
**☎** 1577-3363





## 12월에 만나는 선물 고전발레 ‘호두까기인형’이 돌아왔다

매년 12월이면 만나게 되는 선물, 올해도 매진을 기록한 발레 ‘호두까기인형’이 웅장한 무대를 준비하며 관객들을 맞는다. ‘호두까기인형’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고전발레 3대 걸작으로 꼽힌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토대로 안무가 프티파·이바노프 콤비가 완성했다. ‘눈의 왈츠’, ‘꽃의 왈츠’ 등 수준 높은 군무(코르드발레)와 클라라와 호두까기왕자의 2인무(그랑파드되), 러시아·스페인·아라비아·중국의 캐릭터 댄스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호두까기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클라라가 인형과 꿈속에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호두까기인형과 장난감 병정, 사탕 요정, 과자 왕국 등 화려하고 동화적인 요소에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이 더해졌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1966년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이 초연한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2000년 국내 초연 이후 매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온 스테디셀러다. 주인공 소녀 이름을 ‘클라라’에서 ‘마리’로 바꾸고 호두까기인형을 선물하는 주인공 큰아버지 드로셀마이어를 법률가이자 마법을 쓰는 신비로운 인물로 설정하는 등 등장인물에 구체적인 설정을 추가해 극의 개연성을 높였다. 목각인형 대신 어린 무용수가 호두까기인형을 직접 연기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높은 점프와 고난도 회전, 악마 인형들의 역동적인 춤도 발레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다.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차이콥스키 음악의 아름다움

을 가장 잘 살려냈다는 평을 받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의 바실리 바이노넨 버전을 따른다. 춤 위주인 국립발레단 버전과 달리 줄거리를 설명하는 발레 마임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다. 드로셀마이어로 분장한 무용수가 무대 위에서 실제 마술을 보여주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에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지낸 김지영과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한성우, 체코 국립발레단의 윤별이 객원으로 참여한다. 생쥐로 변신한 비보이 크루가 다이내믹한 움직임 선보인다. 경쾌하고 절도 있는 호두 병정들의 화려한 탭댄스도 볼거리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인형’은 상임 안무가 제임스 전이 한국적 요소를 가미해 안무한 버전이다. 각 나라 전통춤 선보이는 2막 장면에 상모돌리기와 장구춤이 추가되고, 무용수들이 한복을 입는다. 클래식 버전보다 속도감 있는 전개에 극 사이사이 코믹한 요소도 들어간다.

**공연일정(장소)** 국립발레단 12월 19~27일(예술의전당), 유니버설발레단 12월 18~30일(세종문화회관), 와이즈발레단 12월 24~26일(부산 영화의전당), 서울발레시어터 12월 30~31일(과천시민회관)  
**관람료** 국립발레단 5천~9만원, 유니버설발레단 1만~10만원, 와이즈발레단 1만~3만원, 서울발레시어터 금액 미정  
**☎** 02-580-1300(국립발레단), 070-7124-1729(유니버설발레단), 02-703-9690(와이즈발레단), 02-3442-2637(서울발레시어터)



### 국립극장 기대작 ‘트로이의 여인들’ ‘명색이 아프레걸’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이 2016년 국립극장 초연 이후 싱가포르예술축제, 런던국제연극제 등 해외 무대에서 호평을 받은 ‘트로이의 여인들’을 공연한다. 국내 무대는 2017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 공연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에우리피데스의 동명 희곡을 바탕으로 했다. 그리스와 스파르타 연합군 간 10년 전쟁에서 진 트로이의 모든 여인이 승전국인 그리스의 노예로 끌려가기 전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다.

싱가포르 출신의 연출가 웅경선이 연출을, 명창 안숙선이 작창을, 영화 ‘기생충’의 음악감독 정재일이 작곡을 맡았다. 창극 속 음악을 선별한 ‘트로이의 여인들 : 콘서트’ 특별기획공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연말 기획공연 ‘명색이 아프레걸’(가제)이 초연된다. 3개 전속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2011년 국가브랜드공연 ‘화선 김홍도’ 공연 이후 9년 만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1923~2017)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음악극이다. ‘아프레걸’(apres-girl)은 한국 전쟁 이후 나타났던 새로운 여성상을 일컫는 당시 신조어로, 봉건적 사회 구조와 관습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며 자기 역할을 찾았던 이들을 지칭한다. 작가 고연옥과 연출가 김광보가 각각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공연일정(장소)** 트로이의 여인들 12월 3~10일(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트로이의 여인들 : 콘서트 12월 12일(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명색이 아프레걸 12월 23일~2021년 1월 24일(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트로이의 여인들 2만~5만원, 트로이의 여인들 : 콘서트 3만~4만원, 명색이 아프레걸 2만~5만원  
**☎** 02-2280-4114

### 피아니스트 김선옥, 리사이틀·지휘자 데뷔·정경화와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김선옥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리사이틀을 연다.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지휘자 데뷔 무대를 갖고,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듀오 무대에도 오른다.

김선옥은 2006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및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 우승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후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서트헤버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통하는 그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베토벤의 ‘안단테 파보리’와 후기 피아노 소나타 3부작(30~32번)을 휴식 시간 없이 잇달아 연주한다. 지휘자 데뷔 무대에서는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지휘한다.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2번을 연주하면서 지휘도 병행한다. 브람스에도 정통한 연주자인 김선옥은 정경화와 듀오 리사이틀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3번)을 연주한다. 정경화는 1997년 EMI 레코드를 통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발매해 클래식 음반계 최고상 중 하나인 디아파즈 황금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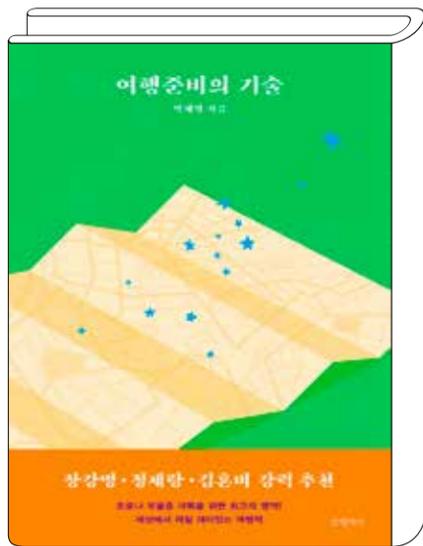
**공연일정(장소)** 리사이틀 12월 8일(롯데콘서트홀), 김선옥&KBS교향악단 12월 14일(롯데콘서트홀), 정경화&김선옥 듀오 12월 18일(예술의전당)·12월 20일(성남아트센터)  
**관람료** 리사이틀 3만~10만원, 김선옥&KBS교향악단 5만~12만원, 정경화&김선옥 듀오 4만~12만원  
**☎** 02-599-5743(빈체로), 031-783-8000(성남아트센터)



김선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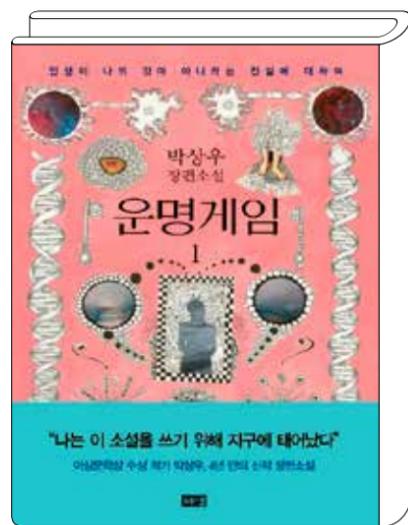
정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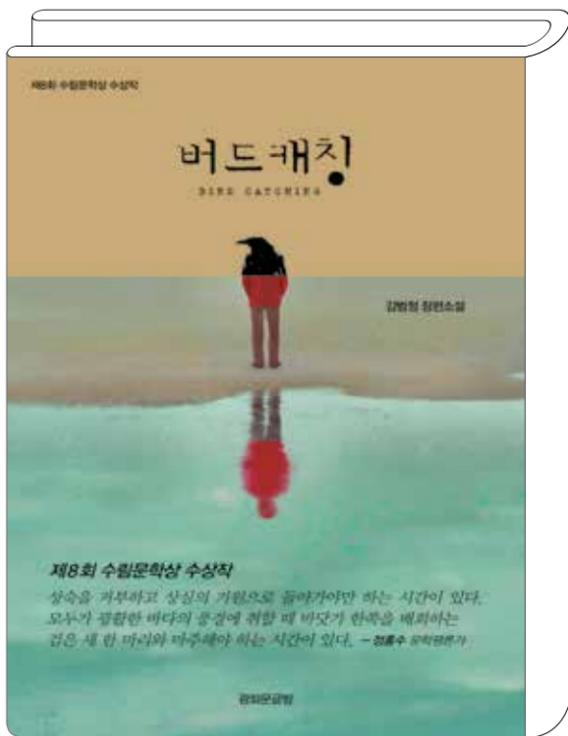
박재영 지음/ 글항아리 펴냄/ 240쪽/ 1만4천500원

“여행준비는 여행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여행가가 아닌 ‘여행준비러’임을 내세우는 박재영 청년의사 편집주간이 여행준비의 미덕을 찬양하는 책 ‘여행준비의 기술’을 펴냈다. 여행 대신 여행준비가 취미라고 밝힌 저자는 ‘소풍 가기 전날이 소풍 당일보다 더 설렌다’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자신의 특이한 취미를 설득시킨다. “여행이 취미인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우울해지지만, 여행준비가 취미인 사람은 하나의 여행이 끝나면 그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며 여행준비의 장점들을 제시한다. 책은 장점 가운데 하나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꼽았다. 여행에 앞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나 미술관, 박물관, 섬, 산, 해변 등의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슈퍼컴퓨터, 증강현실, 인공지능(AI)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가상현실이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것이라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이론’은 누구나 품어보는 본질적 의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실재하는가? 고대 철학자와 성인들부터 붙잡고 고민했던 이 화두를 중견 소설가 박상우가 꺼내 들었다. 4년 만에 펴낸 신작 장편소설 ‘운명게임’을 통해서다. 소설은 종교와 과학을 넘나들고 때로는 초월하며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는 남성, 그리고 그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 ‘나’를 통해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더 근원적인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부제가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진실에 대하여’인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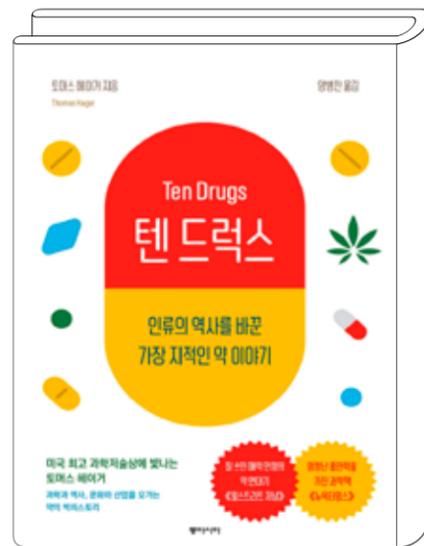


박상우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1권 340쪽, 2권 324쪽/ 각 1만6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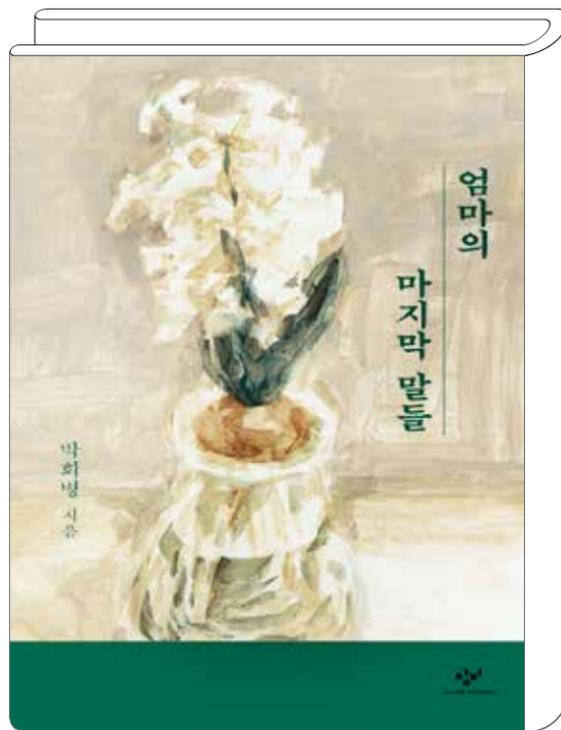
김범정 지음/ 광화문출판 펴냄/ 276쪽/ 1만3천원

제8회 수림문학상을 받은 신인 작가 김범정의 장편소설. 요즘 흔치 않은 순정한 로맨스를 그린다. 남자 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연인이었던 여성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상실감에 빠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를 세밀한 시선으로 따라간다. 사랑과 이별이 반복되는 젊은 날의 불안하고 순수한 감정을 서정적 톤으로 그려낸다. 추리 기법과 로드 무비의 서사를 차용한 진행이 흥미를 더하고, 동성애 코드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실마리가 되는 점도 신선하다. 20대인 작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관계라는 건 애도할 틈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면서 “그런 관계의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1회분 감기약 봉투에도 3~4개의 알약이 들어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먹는 알약을 전부 따져보면 평생 얼마나 될까. 연구자 출신 과학저술가인 토머스 헤이거는 미국인의 평균 수명 통계를 제시하며 “78.54년 동안 하루에 2개의 알약을 먹으면 5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약품 처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도 적지 않은 약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약이 세상을 크게 바꿨다고 설명한다. 아편과 천연두 백신, 헤로인, 피임약, 비아그라 등 10여 개의 약이 어떻게 개발돼 퍼져나갔는지 살핀다. 약의 흑역사도 비중 있게 다룬다.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양에서 오랜 기간 약품으로 활용된 아편을 공급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아편 중독에 빠지고 청나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는 내용,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인 스타틴이 근육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다.

토머스 헤이거 지음/ 양병찬 옮김/ 동아시아 펴냄/ 380쪽/ 1만7천원



박희병 지음/ 창비 펴냄/ 404쪽/ 1만6천원

“출다. 목소리 하고 다니라” “니가 요새 마이 말렸다. 밥은 먹나?” 구순의 노모가 말기암과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옮겨 다니는 동안 병상을 지킨 환간이 녀은 아들에게 건넨 말들이다. 고전학자인 박희병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1년여간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들었던 어머니의 말들과 그에 대한 생각을 묶어 책으로 발간했다. 책은 병상에 누운 노모가 발화한 짧은 말에 저자의 해석과 생각을 덧붙이는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지혜를 모은 잠언도 아니고, 일생을 회고하며 정리하는 이야기기도 아니다. “밥은 먹었나?” 같은 말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병원에 계실 때 엄마가 하신 마지막 말들은 예전에 언젠가 하셨거나 혹은 예전에 늘 하셨던 말이 아닌가 한다. 호스피스 병실의 삶은 결코 예전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예전과 연속되어 있는 삶으로서 엄마 삶의 소중한 일부였던 것”이라고 회고한다.



스벤 칼손·요나스 레이온휘부드 지음/ 홍재웅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 400쪽/ 1만8천원

이용자 3억 명, 시가 총액 60조원, 전 세계 92개국 진출... 스포티파이는 음원계의 넷플릭스라 불린다. 스웨덴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애플과 아마존을 꺾고 전 세계 1위의 오디오 플랫폼이 되었다. 전 세계 음악 청취자 셋 중 하나(35%)는 스포티파이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다.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두 저자는 스웨덴 남쪽 도시 록스베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탄생한 기업이 어떻게 10여년 만에 세계인의 귀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전한다. 기업 내부자료와 언론 보도,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해 스포티파이의 출범부터 현황까지를 상세히 소개한다.